

국별 리포트

# 파푸아뉴기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3. 6.

|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일반개황 .....      | 1  |
| II. 경제동향 .....     | 2  |
| III. 정치·사회동향 ..... | 7  |
| IV. 국제신인도 .....    | 9  |
| V. 종합의견 .....      | 11 |

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

## I. 일반개황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면적   | 463천 Km <sup>2</sup> | GDP      | 158억 달러 (2012년) |
| 인구   | 6.8 백만명 (2012년)      | 1인당 GDP  | 2,312달러 (2012년) |
| 정치체제 | 입헌군주국                | 통화단위     | Kina            |
| 대외정책 | 친서방 중립노선             | 환율 (달러당) | 2.10 (2012년 평균) |

- 파푸아뉴기니는 호주의 동북부에 있는 뉴기니섬의 동쪽에 위치한 국가로서 1975년 9월 호주로부터 독립한 영연방의 일원이며,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.
- 금, 구리 등 광물자원 및 농림수산물 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광물 및 농림수산물의 수출 호조 및 국제가격 상승으로 최근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음.
- 그러나 광업 및 농림수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및 대외 변동성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,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 등으로 정치, 사회적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.

## II. 경제동향

### 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 : %

| 구 분        | 2009 | 2010 | 2011 | 2012 | 2013 <sup>f</sup>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경제성장률      | 6.1  | 7.6  | 11.1 | 9.1  | 4.4               |
| 재정수지 / GDP | -9.6 | 3.1  | 1.7  | -1.5 | -5.1              |
| 소비자물가상승률   | 6.9  | 6.0  | 8.4  | 4.0  | 7.9               |

자료: IMF.

#### □ 대규모 프로젝트 종결에 따른 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

- 2011년에는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, 광업 및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, 정부의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11.1%를 기록함.
- 2012년에는 농산물 가격하락과 실업률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가 둔화되었으나, 자원개발 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.1%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- 한편, 그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대규모 LNG 프로젝트가 2013년에 종결되면서 투자가 둔화되고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 발생되어 경제성장률은 4.4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보건, 교육, 인프라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적자 확대 전망

- 정부지출은 전년보다 소폭 확대하였으나 경기 회복과 주요 상품의 수출가격 상승으로 정부수입이 증가하여 2010년, 2011년에 재정수지는 GDP 대비 3.1%, 1.7%를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함.
- 2012년에는 인프라 투자와 총선실시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로 GDP 대비 재정수지적자는 1.5%를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하였음.

- 2013년에는 보건, 교육, 인프라 부분에 대한 지출이 전년보다 각각 64%, 41%, 70% 증가하면서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 한편, 동국의 광물 생산량 감소와 경제성장세 둔화로 정부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큰폭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5.1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내수소비 증가, 통화팽창 정책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

- 2011년에는 경제성장세 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, 식료품 및 연료가격 상승, 정부의 개발지출 증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.4%를 기록함.
- 2012년 통화가치 상승과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,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, 국제 상품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된 4.0%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함.
-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수소비 증가,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통화 팽창 정책,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7.9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농업과 광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

- 2012년 GDP가 약 85억 달러로 경제규모가 작고 제조업 기반이 부족함. 동국의 산업은 농림수산업과 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, 노동력의 85%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급자족하는 영세 자영농으로 농업 생산성이 낮은 편임.
- 금, 구리, 원유 등 광물자원의 수출이 총 수출의 약 80% 수준에 달하고 세수의 1/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과 광물자원의 생산량이 동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□ 부족한 인프라 시설

- 도로의 85% 이상이 미포장 상태이고 철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, 전력은 일부 주요 도시에만 공급되고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등 교통, 전력, 통신 등 거의 모든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.
- 열악한 인프라는 동국의 주요산업인 광산개발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경제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.

□ 열악한 기업경영 여건

-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(IFC)는 매년 9월 말 세계 185개국에 대해 기업경영여건(Doing Business)을 평가하고 있으며, 2013년 평가에서 파푸아뉴기니는 104위를 기록함. 이는 2012년 108위에서 4단계 상승 하였으나 여전히 중하위권으로 분류됨.
- 특히, 투자환경 평가분야(10개) 중에서 사업폐쇄(125위), 사업허가(159위), 계약실행(166위)는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함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

-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광물석유산업은 동국의 주요 산업으로 광물자원의 수출은 전체의 80%를 차지함. 주요 부존자원으로는 금, 구리, 석유와 가스 등으로 호주, 미국, 일본 등 국가들의 투자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.
- 특히, Lihir와 Hidden Valley 광산에서 금, 은, 구리 등의 광물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까지 전체 광물 생산량은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. Ramu 니켈광산 개발을 통해 2012년에 처음으로 니켈을 중국으로 수출함.
- 최근 정부는 광물세를 없애고 소득세(35%→30%)와 배당세(17%→10%)를 인하하는 법을 개정중으로 향후 동 법이 통과되면 광물 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.

□ 대규모 자원개발에 따른 경제효과

- 엑슨모빌(ExxonMobil)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LNG 사업은 가스 생산과 가공 설비, 육상 및 해안 파이프라인 및 연간 660만 톤 용량의 액화 설비가 포함된 통합 개발사업이며 201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.
-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력이 사회,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인프라 등 사회기반시설이 구축됨. 또한, LNG 수출에 따른 동국의 경제규모 확대, 관련 산업 발달, 민간 소비확대 등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동국의 풍부한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.

다. 정책 성과

□ 사회 및 인프라 개발 추진

- 2005~2008년 중 상품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한 정부수입의 상당 부분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농촌 경제 강화 및 변화를 위한 사회 및 인프라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 우선지출계획자금(신탁기금)으로 유보해 두었음.
- 정부는 동 자금으로 농업 분야 투자, 인프라 개발, LNG 사업의 건설 지원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피터 오닐(Peter O'Neill) 총리는 2013년 240백만 규모의 도로 건설 프로그램을 발표함. 이는 현재 진행중인 자원개발 프로젝트 진행과 2018년 APEC회의 개최를 위한 도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. 또한, 정부는 2013~2017년 5년동안 15억 달러를 투자해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임.

### 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 : 백만 달러, %

| 구 분           | 2009  | 2010  | 2011   | 2012   | 2013 <sup>f</sup>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경 상 수 지       | -852  | -855  | -296   | -2,369 | -846              |
| 경 상 수 지 / GDP | -9.9  | -8.6  | -2.2   | -14.0  | -4.5              |
| 상 품 수 지       | 1,521 | 2,216 | 2,551  | 1,191  | 1,250             |
| 수 출           | 4,392 | 5,745 | 6,791  | 5,604  | 5,686             |
| 수 입           | 2,871 | 3,529 | 4,240  | 4,412  | 4,436             |
| 외 환 보 유 액     | 2,607 | 3,092 | 4,323  | 4,001  | 4,832             |
| 총 외 채 잔 액     | 1,787 | 5,965 | 12,582 | 15,575 | 17,969            |
| 총외채잔액/GDP     | 22.0  | 60.3  | 99.4   | 101.2  | 111.5             |
| D. S. R.      | 13.3  | 14.6  | 15.6   | 16.4   | 15.2              |

자료: EIU, IMF, CRAM.

#### □ 배당금 송금 증가에 따른 2012년 경상수지 적자 큰폭 증가

- 제조업 기반 약화로 대부분의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금, 구리 등의 광물자원 수출로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. 한편, 만성적인 서비스, 소득수지 적자로 최근 5년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- 2011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감소하여 GDP 대비 2.2%를 기록하였음.
- 2012년에는 수출이 감소하여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외국인투자의 수익 및 배당금 송금 증가 등으로 소득수지 적자가 증가하였으며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700% 증가하여 GDP의 14%를 기록함. 2013년에는 서비스 및 소득수지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는 감소할 전망이다.

□ 높은 외채의존도로 외채구조는 점진적 개선 필요

-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해외자금의존도가 높아지면서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9년 22%에서 2013년 112%로 큰 폭으로 증가함. D.S.R.도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6.4%를 기록함. 2013년에는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15.2%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.

### Ⅲ. 정치·사회동향

#### 1. 정치동향

□ 국회의회당을 중심으로 연정구성 후 정치적으로 안정

- 2012년 6~7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피터 오닐(Peter O'Neill) 총리가 이끄는 국회의회당(PNC)이 111석 중 27석을 확보하며 최대 의석을 차지하였으나 절대 과반석에는 미치지 못함.
- 이에 따라, 국회의회당(PNC)은 PPP(국민진보당), NA(국민연합) 등 13개 정당과 연합하여 신정부를 구성하였으며, 국민연합(NA)의 대표이자 전 총리인 마이클 소마레(Michael Somare)의 지지속에서 피터 오닐(Peter O'Neill)이 총리로 당선됨.
- 국회의회당(PNC)을 중심으로 신정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중이며 당분간 이러한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될 것으로 보임.

□ 대규모 실업 발생에 따른 정부 반대시위 가능성 잠재

- 대규모 LNG 프로젝트 완공으로 8,000명의 대량실업발생이 예상되어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적절한 복지제공에 실패할 경우 정부 반대시위가 예상됨. 또한, 정부가 자원관련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반대하는 여당과의 마찰이 예상됨.

## 2. 사회동향

### □ 부겐빌 지역 분쟁 가능성 상존

- 동국에 부속되어 있는 부겐빌(Bougainville)섬의 주민들은 본래 자신들을 뉴기니섬 본토인들과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해 왔으며, 1975년 호주로부터 독립할 때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.
- 부겐빌은 세계 제2위의 동광 매장량 보유 지역으로서, 1989년 중앙정부와의 동 광산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, 중앙정부가 무력 진압을 하면서 1998년 초까지 2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음.
- 1997년 휴전 합의 후, 2001년 8월 중앙정부와 부겐빌 반군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며, 그 이후 중앙정부 방위군의 철수, 무기 회수 및 폐기,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나, 이 지역에서 분쟁 발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.

## 3. 국제관계

### □ 호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적 의존도 축소 노력

- 2008년 초 3년 만에 동국과 호주간 연례장관포럼이 재개되는 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 협력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음.
  - 호주는 동국에 160억불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호주 최대의 교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투자와 비슷한 수준임. 호주 회사는 동국의 광물 분야 개발 운영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임.
- 그러나 최근 호주에 대한 원조와 무역 의존도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'Look North' 정책을 실시하여 일본, 한국 등 아시아 국가 및 ASEAN과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. 특히, 중국과 태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
## IV. 국제신인도

### 1. 국제시장평가

#### 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- S&P는 재정상태 및 대외거래 지표 개선, 정치 안정 등을 반영하여 2007년 9월 동국에 대한 외화표시장기채권 등급을 기존 B에서 B+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. Moody's는 동국에 대한 평가를 1998년 12월 처음으로 평가한 후 이후 등급조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Fitch는 평가를 하지 않음.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| 평가기관    | 최근 평가 등급      | 종전 평가 등급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OECD    | 5등급 (2012. 3) | 5등급 (2011. 3) |
| S&P     | B+ (2007. 9)  | B (2001. 8)   |
| Moody's | B1 (1998. 12) | -             |
| Fitch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

### 2. 주요 ECA의 지원태도

- 미국 Eximbank: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
- 영국 ECGD: 최고 부보율 적용
- 독일 Hermes: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

### 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수립: 1976년 5월 19일 수교 (북한과는 1976년 6월 1일)
- 주요협정: 기술협력협정(1983), 어업협정(1992), 이중과세방지협정(1996), 차관약정(2004)

□ **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**

**<표 4> 한·파푸아뉴기니 교역 규모**

단위 : 백만 달러

| 對 PNG | 2010 | 2011 | 2012 | 주요품목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수 출   | 83   | 103  | 117  | 정밀화학원료, 석유제품, 자동차  |
| 수 입   | 201  | 332  | 207  | 동광(구리 원석), 금, 석유제품 |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PNG와의 교역규모는 2011년에 435백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동광 수입 감소로 전년보다 감소한 324백만 달러에 그침.
- 주요 수출품은 정밀화학원료, 석유제품, 자동차이며 주요 수입품은 동광, 금, 석유제품으로 자원 수입으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- 대 파푸아뉴기니 앞 해외직접투자(2013년 3월 말 누계 및 총투자 기준)는 농업, 임업, 어업을 중심으로 30건, 9,815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.

## VI. 종합 의견

- 파푸아뉴기니는 광물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높은 경제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011년 11.1%, 2012년 9.1%를 기록함. 한편, 2013년에는 대규모 프로젝트 종결에 따른 투자 둔화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은 4.4%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.
- 광물자원 수출증가에 따라 조세수입이 증가하면서 2010~2011년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정부 지출과 광물생산량 감소에 따라 재정수지는 적자로 전환하여 2013년 GDP대비 5.1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 광물수출로 상품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규모 투자에 따른 배당금 송금 증가로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함.
- 국민의회당(PNC)을 중심으로 신정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중이며 당분간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,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등 사회불안 요소는 상존하고 있음.

조사역 서은주 (☎02-3779-5705)  
E-mail: seoeunchu@koreaexim.go.kr